

최신 스포츠 인프라 확충... 전남, 전훈 메카 거듭난다

2090억 투입 경기장 5곳 신축·48곳 개보수... 선수 기량 향상 도움 남도 관광·문화 자원 활용해 스포츠 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104회 전국체전을 위해 확충된 전남지역 경기장 시설은 전남 체육 발전뿐만 아니라 전지 훈련 및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지역 발전의 호기로 활용하게 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고, 48개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를 마쳤다.

목포종합경기장, 목포반도체체육센터, 나주 스퀘어전용경기장, 나주 장애인종합복지관 론볼경기장, 광양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5개 경기장의 경우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을 포함해 1471억원을 들여 새로 건설했다. 목포실내체육관, 여수진남체육관, 순천팔마체육관 등 전남 22개 시·군 48개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에도 시·군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스포츠자금 등 619억원을 투입했다.

전국체전 개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스포츠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쉽지 않고 지원받더라도 규모가 적어 이처럼 단기간에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10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스포츠 시설이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한꺼번에 확충된 것으로, 향후 전남 체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뛰어난 재능을 갖춘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기량을 쌓아 세계를 상대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 시설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발전뿐 아니라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되면서 전남 곳곳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해남군의 경우 최신 설비를 갖춘 다양한 스포츠 경기장을 바탕으로 전지훈련 메카로 발돋움한 상태다.

우슬체육공원 내에 육상트랙과 천연 잔디구장을 갖춘 우슬경기장, 3면의 축구전용구장, 종목별 체육관, 수영장, 웨이트 트레이닝장 및 전천후 실내수상경기장 등을 집약해 조성한데다,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 출신 트레이너 전문가 등을 배치하면서 매년 겨울이면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불케 할 정도로 운동 선수들로 북적인다. 지난 겨울 겨우겨우 전지훈련팀만 14개 종목 134개팀, 연인원 4만여명에 달했다. 해남은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9개 경기장 시설에 국비 등 47억여원을 투입해 개·보수를 진행했다.

해남뿐 아니라 목포 실내수영장·국제축구센터 개·보수 등 9건(211억 6000만원), 여수 진남야구·테니스장 개·보수 등 5건(83억 4000만원), 순천 팔마야구장·소프트테니스장 개·보수 등 10건(44억



전남도는 '제104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20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목포종합경기장·목포반도체체육센터 등 5개 경기장을 신축하고, 22개 시·군의 48개 경기장을 개보수했다. 목포종합경기장의 전경. <특별취재반>

9000만원), 나주 전남사이클경기장·국제사격장 개·보수 등 6건(62억 1600만원), 보성 별교생태공원 축구장 개·보수 등 4건(47억원) 등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확충한 탄탄한 스포츠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전남지역의 독특하고 고유한 관광·문화 자원을 활용하면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될 스포츠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수단과 관람객 입장에서 편

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경기 환경을 위해 조성한 시설들이 전남 체육 발전과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특별취재반

“내 고향에서 열리는 체전...생애 가장 뜨거운 일주일 보내”

체전 이모저모

박종선 씨 “수영·마라톤 전경기 관람”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 열린 일주일 동안 선수와 함께 울고 웃었던 전남 도민 응원단(이하 응원단)이 폐회식까지 함께 해 열기를 더했다.

19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까지 무사히 마치며 역대 최고로 꼽히는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전국체전 기간 좋아하는 종목·선수의 경기를 찾은 응원단은 폐회식에서도 응원봉을 놓지 않고 흔들며 자리를 빛냈다.

평생 목포에서 거주한 박종선(60)씨는 대회기간 동안 평소 관심을 가졌던 마라톤, 수영의 모든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다.

박씨는 “내 고향에서 전국적인 체육대회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시민 서포터즈를 신청했다. 열정적인 선수들과 다른 서포터즈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웠던 일주일이었다”고 말했다.

생명·전통 현대 어울린 폐막식 환상적

○19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진 제104회



도민 응원단 박종선(60)씨가 전국체전 폐회식에 참석해 응원 깃발을 흔들는 모습.

전국체전 폐막식 공연은 ‘울림림 하나 된 우리’라는 주제로 생명, 전통, 현대가 어우러지는 자리였다.

박명성 총 감독이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를 섞어내는 조화로운 공연을 선보이겠다”는 취지에 맞게 공연은 동·서양 악기의 조화를 볼 수 있었다.

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이 들려주는 ‘또 다른 빛으로 되길’이 먼저 울려 퍼졌다.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이어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아

리랑 부채춤’을 선보였다.

아리랑 가락에 맞춰 부채를 흔들며 관중들은 갈채를 보냈다. 난타, 드럼 등에 춤, 노래가 곁들여지는 타·무악 공연 ‘마침내 바다’도 볼 수 있었다. 특설 무대에 자리한 관중들은 연신 환호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뒤섞임에 박수를 보냈다.

한편 전남도립단 기주영 PD는 “전국체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남 도민, 선수단을 ‘문화예술’을 매개로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지역 넘어 선수들 열정 응원하러 왔어요”

목포 유달중 박승우·김정원 학생

“전남팀이 농구 결승까지 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마지막까지 잘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기분이 좋아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을 겨루지만, 이를 응원하는 관람객이 없으면 그 재미는 반감된다.

19일 오후 전국체전 폐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목포 농구경기장에서는 농구결승전이 열렸다. 이날 교복 차림의 목포 유달중 박승우(14)군과 김정원(14)양이 경기장을 찾았다. 박군과 김양은 전남 대표인 상무 농구단 소속 허훈을 응원하기 위해 수업을 마치고 마차 뛰어왔다.

“저희들이 좋아하는 허훈 선수가 전남 대표로 목포에서 뛰겠다고 해 꼭 보고 싶어 왔는데 금메달까지 따서 너무 기뻐요.”

경기장 내에는 상무와 허훈을 연호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오전 결승전에 진출했던 전남 하키팀 응원단까지 농구장을 찾아 경기장은 꽉 찼다.

“모든 선수들을 다 응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허훈 선수와 사진을 찍고 싶어요. 평소에도 농구, 태권도, 야구 등 여러 운동들을 좋아하는데 경기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



전남 상무 소속 허훈을 응원하기 위해 코트장을 찾은 김정원(왼쪽), 박승우 학생.

니다. 막상 와보니 응원 열기도 뜨겁고, 스타 플래이어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별취재반

한사람의 보험비의 두 배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기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